

농림부, 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농림부에서는 지난해 초 IMF의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계계열화업체에 지원한 1년만기 경영자금에 대해 6개월간 상환을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97년 12월부터 시작된 IMF 위기로 인한 환율상승으로 사료값 인상, 유류대 인상 등 원가상승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지난해 1월 육계계열화사업 경영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탁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사육

비도 계속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극약처방으로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

하지만 융자기간이 1년이었으며 현재도 아직 IMF가 끝난 것이 아니며 자금의 대부분이 농가에 육계사육비로 계속 지급되고 있고 IMF이후 모든 금융권이 경색되어 자금유통이 거의 불가능한 이때 무리하게 전액 상환할 경우 IMF 초기와 같은 현상(농가 사육비 지급 지연 등)이 재연되어 사육농가의 불만야기는 물

론 닭고기의 수급 차질 등 사회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본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상환 연기를 건의해 온 상황이었다.

이번의 연기 방침은 두가지의 방법으로 1안은 상환기일에 잔액의 50%를 상환하고 6개월후에 나머지 50%를 상환하는 것이며, 2안은 상환해야할 금액을 6개월 균분상환하는 것으로 업체에서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99년 종계 양허관세 물량 배정

'99년에 수입될 원종계와 종계에 대한 양허관세 추천물량 실수요자별 배정이 마무리되었다.

원종계는 170,450수로 육용이 96%, 산란용이 4%이며, 종계는 산란용이 100%로 290,550수이다.

한편 양계협회는 지난해 수입된 실적에 감안하여 농림부에 시장접근물량 증량요청을 한 상태여서 확정이 되면 539,000수분에 대한 추가 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축산국장에 소만호씨

농림부는 지난 1월 20일 대대적인 국장급 전보발령 인사를 단행했다.

농림부 공보관에는 정학수 전 기획예산담당관, 농업정책국장에는 김웅채 전 감사관, 유통정책국장에는 김주수 부이사관이 전보 발령되

었다.

축산국장에는 소만호 전 공보관이 발령되었으며 김옥경 축산국장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이홍길 전 축산위생과장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연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축산위생과장에는 이주호 수의서기관이 발령되었다.

가축방역사업 예산 2백41억원

올해 가축방역사업분야 총예산은 국비 1백43억3천7백82만원을 포함해 모두 2백41억8백69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농림부가 제시한 시도 가축위생관계관 회의자료에 따르면 국비 1백43억3천7백82만원, 지방비 49억2천8백87만8천원, 기금 48억4천9백만원 등 모두 2백41억8백69만8천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주요사업별로 예산액은 살처분, 도태 등에 따른 보상비 29억원을 비롯해 예방주사 접종사업 79억5천8백62만9천

원, 가축혈청검사사업 2억6천99만 원 등을 국비와 지방비에서 배정했다.

농림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농림부가 지난해 7월 입법예고한 사료관리법시행규칙과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대한 개정령이 지난 1월 19일에 최종 확정되어 공포되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령은 당초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의 내용을 거의 수용하고 있는데, 이로써 동물약품업계와 사료업계간의 첨예한 대립이 일단락 되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단미사료제조업자, 보조사료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에 추가되는 광물질첨가물, 향산화제, 항곰팡이제, 효소제, 생균제, 아미노산제 또는 비타민제를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육계사육수수 세계 31위권

- 농림부, "통계로 본 우리나라 농업" 발표 -

농림부는 지난해 12월 농축산물 생산량 등 통계지표를 비교한 「통계로 본 세계속의 한국농업」을 발표하였다.

WTO 체제 출범에 따른 국제화, 개방화로 우리나라 농업도 국제경쟁 체제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최근의 FAO 통계 등을 기초자료로 하여 세계 200여개국 및 OECD 2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우리나라 농업의 국제적 위상에 관한 통계를 작성·발표하게 된 것이다.

농업기본구조와 관련된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은 세계 200여개국 중 중간 수준이상, OECD 기준 농가인구는 상위, 경지면적은 중하위수준으로 나타났다. '97년 농가인구는 4,468천명으로 세계 54위, OECD 6위 수준을 보였는데 1위는 중국으로 851,844천명, 2위는 인도 541,391천명, 3위는 인도네시아 93,884천명으로 나타났다. 96년 기준 경지면적은 1,945천ha로 세계 89위, OECD 20위, 이 부문 1위는 미국이 177,000천ha로 1위, 인도가 169,700천ha로 2위, 중국이 135,072천ha로 3위를 각각 기록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97년 기준 국토면적은 9,931천ha로 세계 109위, OECD 19위, 총 인구는 45,991천명으로 세계 26위, OECD 9위이다.

'97 쇠고기 및 우유생산량은 세계

30~40위 수준(쇠고기 30위, 우유 41위)이지만, OECD 회원국 중 쇠고기 16위, 우유 23위로 중하위 수준을 보였다. '97 돼지고기 및 계란생산량도 세계 19위이며, OECD 회원국내에서는 10~15위 수준(돼지고기 14위, 계란 11위)으로 중위수준을 각각 나타냈다.

가축사육두수를 비교해 보면 '97년 소(한육우, 젖소)의 사육두수는 3,280천두로 세계 59위이나 돼지, 닭은 각각 24위, 31위로 상위수준으로 나타났다.

돼지, 닭 사육두수 순위가 소의 순위보다 낮은 것은 국토면적이 세계 109위로 협소하기 때문에 조방적인 축산업인 소 사육보다는 돼지, 닭 사육을 선호하는데 기인하며, 바람직한 결과로 보인다.

OECD 회원국중에서는 소 16위, 돼지 14위, 닭 12위로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는 인도가 209,084천두로 1위, 다음으로 브라질이 163,000천두, 중국이 116,459천두이며 돼지는 중국이 468,055천두로 1위, 다음으로 미국이 56,171천두, 브라질이 35,800천두를 보였고 닭은 중국이 30억수로 1위, 다음으로 미국이 16억수, 인도네시아가 12억수를 각각 기록했다.

생산량을 보면 '97 쇠고기(지육기준) 및 우유 생산량은 세계 30~40위 수준(쇠고기 30위, 우유 41위)이지만, OECD 회원국중 쇠고기 16위, 우유 23위로 중하위 수준을 보였다. 쇠고기는 미국이 11,562천톤으로 1위, 브라질이 5,150천톤, 중국이 4,104천톤으로 뒤를 이었으며 우유는 역시 미국이 71,500천톤, 인도 34,500천톤, 러시아 34,100천톤의 순서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지육기준) 및 계란생산량은 세계 19위이며, OECD 기준으로는 10~15위 수준(돼지고기 14위, 계란 11위)으로 중위권으로 돼지고기는 중국 37,275천톤, 미국 7,835천톤, 독일 3,499천톤 순이었으며 계란은 중국이 17,214천톤, 미국이 4,567천톤, 일본이 2,567천톤을 각각 기록하였다.

수출액으로 보면 '96년 기준 농산물 수출액은 1,424백만불로 세계 44위, OECD 25위로 농산물 수출액의 순위가 '95년 이후 높아지고 있다. '96년 기준 총 수출액은 129,715백만\$로 세계 11위, OECD 9위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총 수출액 및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미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수산물 수출액의 경우 프랑스, 캐나다 순이며, 총 수출액은 독일,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1면에 이어서 ↴

7. 활력은 있는가?

건강한 병아리의 상징은 눈빛이 선명하고 기민하여 활동적인 것이다.

8. 크기가 균일한가?

가급적이면 병아리의 체중이 균일해야 한다. 큰 병아리와 작은 것파를 같이 사육하면 작은 병아리들은 성장에 차이가 생긴다.

9. 다리의 빛깔은?

병아리의 다리와 정강이는 밝고 윤이 있어야 하며 육색이 되는 것이 좋다. 건조해 보이고 또 비듬기가 있는 것은 건강한

병아리가 아니다.

10. 운송과정은 적절한가?

병아리 구입 경로 때문에 부득이 원거리의 부화장에서 운반해올 경우도 있겠으나 운송수단은 가급적 병아리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법을 택하도록 해야하며 또 가장 빠른 시간내에 육추환경이 갖추어진 장소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11. 조기폐사는 없는가?

병아리가 농장에 도착하여 7~10일 사이에 일어나는 폐사는 병아리 자체의 결함에서 오는 수도 있다. 수차에 걸쳐 계속하여 조기 폐사가 높다면 이는 우수한 병아리가 아니다.

미국의 닭고기 수급 하락세

- 99년의 닭고기 수출은 전년 수준을 밑돌 전망 -

미농무부(USDA)의 98년 11월 시점의 수급 예측에 따르면, 98년의 브로일러 수출량은, 전년대비 0.4% 증가한 2백12만4천 톤으로 거의 전년수준을 유지하지만, 99년에는 3.4%감소한 2백5만2천 톤이 될 전망이다.

98년8월 시점의 수급 예측과 비교하면, 98년에 대하여는 17만4천 톤 감소, 99년은 27만3천 톤 감소로 대폭적으로 하향 수정됐다. 이는 미국산 닭고기의 최대 수출지인 러시아로의 수출이 대폭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닭고기 수출량이 전년 수준을 밑도는 경우는 84년 이후 15년 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편, 99년도 닭고기 생산은 전년대

비 5.4%증가한 1천3백25만 톤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국내 소비가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식육과 비교하여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 건강을 중요시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된 제품을 계속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근래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HMR(Home Meal Replacement)이라고 불리는 제품에도 닭고기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USDA에 따르면, 99년의 1인당의 닭고기 연간 소비량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35.2kg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HMR은 대우거나 끊어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주재료와 양념 등의 부재료를 한 세트로 제

공하는 것으로 간편성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으로 현재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다.

현재 닭고기 생산·가공 업자는 여전히 높은 수익을 유지하고 있고, 이것이 금후의 생산 자극 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닭고기의 도매 가격은, 8월을 피크로 하락하고 있지만, 사료 원료 곡물의 가격 하락으로 생산비용의 약60%를 차지하는 사료비가 전년대비 약 20% 이상 절감되고 있다. 이 결과, 98년 후반의 닭고기 생산·가공 업자의 순수익은 근래 보기 드문 고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러시아로의 원조 및 수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금후의 사료 원료 곡물의 가격 동향의 변화에 따라서 상황은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타이슨푸드, 태국 진출 좌절

지난해 11월 13일 태국에 진출하고자 했던 타이슨 푸드는 태국의 업체와의 합병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수입 관세의 면제와 인건비 절감을 목표로 태국의 계육업체와의 합병기업 설립을 추진했던 타이슨푸드는 태국 국내에 공동으로 대규모 닭고기 가공장을 건설하고, 미국에서 닭고기를 수입해 가공하여, 유럽이나 일본에 재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태국으로서는 현재 수입한 닭고기를 가공하고 재수출하는 경우, 58%의 수입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보다 값이 싼 미국산 닭고기를 사용하여 수출 가격을 낮게 유지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한편, 미국으로서는 태국의 높은 가공 기술을 이용하고, 유럽이나 일본에서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으며, 인건비가 싸 미국내 남아도는 부위를 태국에서 가공하여 수출함으로써 특

히 일본 시장에서의 미국산 닭고기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현재 검역 조건의 문제로 수출이 되지 않는 EU시장으로의 수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태국내의 육계관련 업계에서는 값이 싼 미국산 닭고기의 수입·가공·재수출이, 태국산 닭고기 생산량의 감소에 관련되며, 이에 따른 닭고기 가격의 상승, 사료회사등 관련 업계의 대량 실업자의 발생 등 국내 산업에 악영향이 생긴다며 반대했었다. 또한, 현재 검역 조건 등을 문제로 미국 닭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EU에서 만약 태국 정부가 미국에서의 닭고기 수입을 허가할 경우, 태국산 닭고기도 미국산과 같이 수입을 금지할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정부에 미국산 닭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었다.

중국, 축산물수출 부진

중국의 주요 축산물 및 사료곡물의

수출 동향을 보면, 이미 수출이 급속하게 확대되어 호조를 유지해 온 닭고기 등 가금육 수출의 부진이 97년 이후 심각해지고 있다.

반면, 돼지고기는 생산량 급증으로 공급이 과다해 수출이 급증하였다. 또, 쇠고기의 경우도 수출이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들어 국내 수요의 증대를 충당하고 남은 만큼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축산물생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옥수수는 3년 연속 풍작으로 국내수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풍작을 거두고 있어 수출이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축산물수출 확대에 전인차 역할을 해 온 가금육 수출이 부진한 배경에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일 수출에서 다른 닭고기 수출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중국은 이와같은 닭고기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EU시장에 대한 조속한 수출재개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

축협, 육계 계약농가선정 본격화

축협의 육계계열화사업을 위한 계약농가선정 작업이 본격화 된 가운데 올해 농가수가 당초 계획 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축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음성축협에서 음성과 괴산 및 진천지역 농가들을 시작으로 28일 충주 상공회의소에서 권역내 육계농가들에 대한 계열화사업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대부분 농가들의 사육규모가 2만수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가수 산출시 호당 사육규모를 2만수로 계산, 80호를 선정키로 했던 것만큼 실제로 선정될 농가수는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축협은 앞으로 청주지역(보은 청원포함), 경기도 안성지역, 이천·여주 지역 용인지역 농가들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끝으로 올해 농가선정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계약농가 자격은 축협 조합원으로 1만수이상 육계를 사육하고 있거나 시설을 갖춘 농가로 조합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인성과 사육시설, 사양기술, 계분처리와 관련한 환경적 측면 등에 대한 축협측의 실사결과를 만족시켜야 한다.

알레르기 없는 옷닭 개발

옷알레르기 증상이 없는 옷닭과 옷오리 제품이 개발되어 양계농가와 오리사육농가의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농림축산물 산업화 연구본부 성기승 기술사 연구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이용되어온 옷알레르기 증상이 없는 옷닭과 옷오리 등 제품의 편이식품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농림기술개발사업 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로서 '95년부터 3여년간 약 1억5천여만원을 연구비로 투자해 개발된 이 제품은 옷알레르기 원인물질을 생약제로 중화시킴으로써 옷이 오르지 않고 일반 가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캔 또는 레토르트, 파우치 형태로 편이식품화하여 슈퍼마켓, 편의점, 백화점 등에서 일반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번 연구는 항암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옷을 이용하여 건강식품 및 기능성 식품개발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생약제 30여종에서 추출한 혼합액을 닭 또는 오리와 함께 121℃에서 가열하여 피부염 발생이 없으면서 항암 및 항산화 효

능시험에서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제너시스, 거듭나기 한창

BBQ와 백년손님을 운영하는 (주)제너시스가 올해 체계화되고 안정적인 기반 확립을 계획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에 한창이다.

제너시스는 지난 3년여 동안 급팽창한 본사를 체계적인 매뉴얼과 책임제를 통해 안정화되도록 내실을 다지는 한편, 가맹점 확대보다는 기존 가맹점 매출을 올리기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울초 부서별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본부와 영업본부, 물류본부, 각 지역본부 등 사업본부 아래 사업부를 두고 각 사업부 안에 팀을 구성, 조직을 재정비하고 팀장급 및 직원을 보강했다. 또한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각 사업부에는 지원팀을 두어 부서별 경영과 관리를 맡도록 했다.

한편, 가맹점의 효율적인 관리와 매출증대를 위해 슈퍼바이저 체계를 강화, 점포관리 이상의 경영지도 요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권한부여 및 자질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품 품질 높이기에도

주력, 기존 제품 개선과 신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대만, 가금육 소비증가율 높아

돼지고기는 대만의 식육문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식육이다. 최근에 경제발전을 배경으로 한 소득의 향상으로 식육소비는 증가하는 경향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크다.

96년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지육기준)은 40.6kg로 86년의 34.7kg에 비해 17.0% 증가했다. 그러나, 식육소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가 하락한 54.1%로 나타났다.

식육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의 소비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집오리 등을 포함한 가금육의 소비가 증가되어 왔기 때문이다.

가금육의 1인당 소비량은 10년간 19.8kg에서 30.5kg으로 증가했는데, 소비증가율은 돼지고기를 크게 웃도는 54.4%이다.

한편, 쇠고기 소비량은 절대량이나 소비증가율 모든면에서 소폭증가에 머물고 있다.

구조조정에 따른 닭고기 공급 부족으로 가격 강세

- 복병 수입닭고기, 환율안정과 가격하락으로 증가추세 -

IMF이후 시작된 비용증가와 소비 감소 등 악재가 계속되던 상황에서 중계도태, 입식감축 등 생존을 위한 발빠른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계육업계는 98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병아리의 공급부족현상으로 생산비를 웃도는 시세가 형성되어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다.

이 영향은 이 당초 예상했던대로 99년 1/4분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지난해 배합사료 생산량은 육계사료의 경우 1백22만3천톤으로 97년 비해 12%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1월~9월까지의 전년동기대비 11.6%가 감소하였으나 10월~12월의 전년동기대비 생산은 13%의 감소로 감소폭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다소 생산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중계사료의 경우 22만9천8백87톤으로 97년에 비해 17%가 감소하였으나 1~9월까지의 전년동기대비 수준

은 19%가 감소한 반면 10~12월에는 전년동기대비 12%감소로 중계사료의 감소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99년 3월 이후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 절대량이 작기 때문에 그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며 곧바로 소비가 많은 계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육계가격의 수준은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겨울은 당초 예상과 달리 겨울날씨 같지 않게 기온이 높은데다 일교차가 적고 비나 눈도 적어 육계농가의 경우 예년과 비해 질병피해도 크게 줄었다. 여기다 배합사료업체들의 사료품질 강화전략도 육계생산성 향상에 한몫을 하고 있어 위탁사육농가들의 평균 생산지수가 예년과 비교해 10%이상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수익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생산량은 줄어 병아리 가격 520원을 고려한 생산비 1200

원~1300원을 상회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천2백63톤이 수입되었고 새해들어 2천3백44톤으로 점점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병아리 공급부족으로 인한 가격의 강세와 함께 최근 환율의 안정으로 수입단가는 낮아지고 있어 국내산과의 가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물량은 현재 하루평균 소요량의 약 10%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수입량의 대부분이 닭갈비에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며 최근 환율이 1천2백원대 이하에서 형성되고 있어 수입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랜만에 조성된 수급의 균형으로 현재 계육업계는 비교적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수입물량의 증가와 고질적인 유통질서의 문제로 그 효과를 크게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99-1차 통합경영분과 위원회 개최

지난 1월 13일 본회 회의실에서는 가축수송차량 소독실시 및 닭고기 유통에 관한 건으로 99년도 제1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농림부에서는 가축수송차량 및 어리장의 세척·소독을 올해부터 의무화하기로 하여 지난해 고시를 발표하고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세한 위탁도계장에서는 최근에 170원 이하의 도계료를 받으면서까지 출혈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시설투자는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2000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HACCP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

의 경우 HACCP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을 정리할 예정으로 있는 등 취약한 부분이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본회에서는 앞으로의 위생적인 닭고기 생산, 더 나아가서는 해외로의 수출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부에 철저한 관리를 건의하였으며 도계장에서의 필수 설비인 밴트커터, 오프너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농림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양계협회에서 실시예정인 병아리생산조사에 본회 회원사는 안정적인 수급조절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조사된 자료는 회원사에 즉시 통보키로 하였다.

또한, 닭고기 유통에 대해서 정착단계에 있는 생계운반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였으며 적용수율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하

였다.

요리카드 4차제작 배포

본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연중 계속 사업으로 요리카드를 제작 배포한다.

4차로 제작되는 이번 요리카드는 '깜풍기'로 중국집에서나 접할 수 있었던 요리로 가정에서도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요리법을 소개하였다. 이번에도 지난 3차와 마찬가지로 오뚜기와 공동제작하며 지난번의 케찹에 이어 참기름을 홍보한다.

5만부를 제작하여 수도권 대형 식품매장에 비치하여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차후에는 식품매장 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도 비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